

No.46

Japan Weekly Digest

2010. 8. 2 ~ 8. 8

□ 금주의 이슈

- 히로시마 ‘원폭의 날’ 행사, 최초로 유엔사무총장 참석
- 지경부장관, ‘한중일 경제통합노력 필요성’ 강조
- 아사히맥주, 해태매각하고 롯데와 제휴 발표

□ 일본 정재계 소식

- 간 나오토 총리 한일병합 100년 담화 검토
- 경단련, 민주당과 최초로 정책협의 채널 구축
- 대기업, 환경관련 연구개발투자 확대
- 한일FTA 논의를 위한 국장급회의 개최 예정

□ 경제산업성 및 기업 동향

- 산업구조심의회에 ‘인프라수출部會’ 설치
- 2011년 세제개혁을 위한 기업조사 실시
- 日-베트남, 원자력협력을 위한 장관급회의 개최
- 미쓰비시중공업 등, 한국에서 화력발전설비 수주

□ 일본 관련 보고서 리뷰

- 한경·요미우리 공동으로 한일기업인 설문조사



협회 한일경제협회
Korea-Japan Economic Association

※ 자료제공 : 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

※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(<http://www.kje.or.kr>)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
있사오며, 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(Tel.02-3014-9888)

□ 금주의 이슈

- 히로시마 ‘원폭의 날’ 기념행사에 최초로 유엔사무총장 참석
 - 히로시마시는 6일, 평화기념공원에서 제65회 「원폭평화기념」 행사를 개최
 - 원폭투하국인 주일미국대사와 영국, 프랑스대표가 처음으로 참석하였고, 과거 최대 규모인 74개국에서 참가. **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최초로 참석**
 - * 반기문 총장은 한국인 피폭자들을 면담하고 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비에 헌화 예정
 - 아키바 히로시마시장은 비핵화 3원칙 법제화 등 일본정부가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는 등 핵 폐기를 위해 앞장서 줄 것을 요청

- 지경부장관 요미우리와의 인터뷰에서 ‘한중일 경제통합노력 필요성’ 강조
 - 지식경제부 최경환장관은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「**한일, 한중일 자유 무역협정(FTA) 등 경제통합을 위한 노력**」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
 - UAE 원전수주에서 제시한 「운전·보수 60년 보증」에 대해 「한국형 원전설계 수명이 60년이 되었다」고 처음으로 근거를 밝힘
 - 한국경제에 대해 **97년 IMF위기 때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과도한 채무문제와 동일업종에서 다수의 기업이 존재하는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언급**
 - UAE 원전수주의 성공요인에 대해서는 **이명박 대통령님이 경영자출신으로 중동에서 프로젝트 경험이 많았던 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언급**

- 아사히맥주, 해태를 매각하고 롯데와 제휴 발표
 - 아사히맥주는 3일, 해태음료를 매각하는 대신 맥주사업의 제휴 경험이 있는 롯데그룹과 음료사업에서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
 - 해태는 실적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향후에도 경영개선이 어렵다고 판단, 음료사업에서 경쟁력 있는 롯데와 협력하여 사업 확대를 도모해 나간다는 전략
 - * 아사히는 2004년, 한국음료업계 3위인 해태음료에 투자하였으나 매출이 해마다 줄어 '09년에는 적자를 기록하였고 '10년도 적자가 예상
 - 한편, 아사히와 롯데는 '04년 맥주판매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매출확대에 성공. 롯데는 한국 음료시장에서 최대기업으로 아사히는 롯데와 협력하여 상품개발이나 마케팅에서 시너지 효과를 거두겠다는 전략

□ 일본 정재계 소식

○ 간 나오토 총리, 한일병합 100년 담화 검토

- 간 나오토 총리가 한·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이하여 담화 발표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음

- 간 총리는 4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“한국은 아주 중요한 이웃 국가로 일본과 한국의 관계강화는 양국에 매우 유익하다.” 면서 한일병합 100년과 관련된 담화 발표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”고 언급

*일본에서는 전후배상 논의로 발전할지도 모른다고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속출

- 한국에서는 이미 일본 총리담화에 대한 기대가 커서 담화를 발표하지 않게 되면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질 것이라고 日언론이 보도

○ 경단련, 민주당과 최초로 정책협의 채널 구축

- 경단련은 5일, 민주당과 처음으로 정책협의를 개최했다고 발표
- 민주당 정권에 우호적인 경단련 요네쿠라 회장은 에다노 민주당 간사장 등 민주당 간부와의 회의에서 「세·재정사회보장 개혁은 일본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.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국민을 위한 논의를 진척시켜야 한다」고 강조
- 그밖에 민주당이 발표한 신성장전략, 환경문제, 국회운영 등에 대해 의견 교환

○ 日기업, 환경관련 연구개발투자 확대

- 닛케이신문의 「2010년 연구개발투자 조사」에 의하면 일본기업은 태양전지 등 에너지 절약기술이나 전력소비를 줄이는 기술, 전기자동차 등 환경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
- 일본 주요기업(246사)의 2010년 연구개발투자는 전년대비 5% 증가한 10조 7000억 엔으로 약74%의 기업이 09년보다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
- * 에너지절약기술(61%), 태양전지기술(49%) 관련 연구비가 09년 보다 2~3% 증액
- 연구개발투자 상위기업 : 1위 도요타 7600억 엔, 2위 파나소닉: 5500억 엔

○ 한일FTA 논의 재개를 위한 국장급회의 9월 개최 예정

- 한일FTA교섭 재개를 위한 국장급 협의를 9월에 도쿄에서 개최기로 합의

□ 경제산업성 및 기업 동향

○ 산업구조심의회에 ‘인프라수출部會’ 설치

- 경산성은 2일, 상하수도, 전력설비 등 신흥국에 대한 인프라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구조심의회에 「인프라·시스템 수출부회」를 설치했다고 발표
- 일본 기업의 인프라 수주확대를 목표로 관민연계에 의한 종합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목적
- * 신흥국의 인프라 수요는 아시아에서 2030년까지 약 8.3조 달러(약721조엔)로 추정
- **원자력, 철도, 물, 우주 등 11분야의 업계로부터 의견을 수렴, 수출촉진대책이나 관민연계 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**

○ 2011년 세제개혁을 위한 기업조사 실시

- 경산성은 3일, 2011년도 세제개혁방안 마련을 위해 기업·경제단체를 대상으로 공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
- 경단련, 상공회의소 등을 방문하여 세제개혁에 관한 의견을 청취
- 경단련은 법인세율 5% 인하와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세제 검토를 요구하였고, 석유연맹은 지구온난화세(환경세)에 대해 「에너지가격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악화시킨다」고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짐

○ 日-베트남, 원자력협력을 위해 장관급 회의 개최

- 베트남정부가 발주하는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에 대한 협력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일-베트남 장관급 회의를 8월 중순 개최한다고 발표
- 닛케이신문은 약7500억 엔 규모의 대형 사업을 일본기업이 수주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대신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
- *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핵폐기물처리를 포함한 연료 사이클 구축, 핵확산방지에 관한 노하우 제공, 인재육성, 원자력협력협정 등임
- 일본과 베트남 간의 장관급 회의는 이번이 처음

○ 미쓰비시중공업 등 한국에서 화력발전설비 수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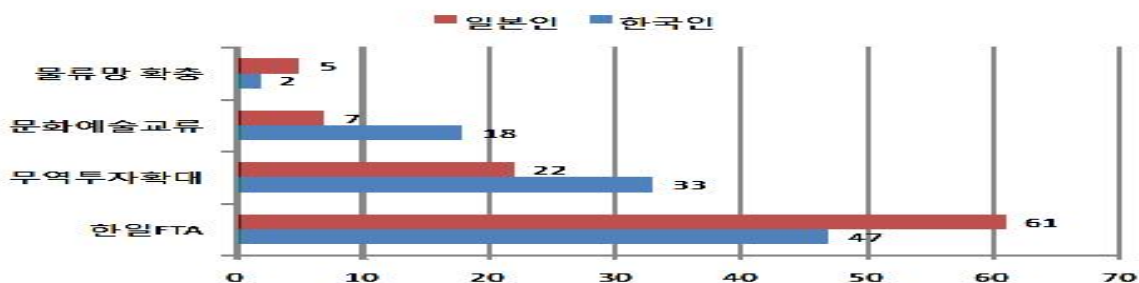
- 미쓰비시와 마루베니는 한국에서 화력발전소 증기터빈 2기를 수주했다고 발표
- 한국전력 자회사인 동서발전에서 수주했으며 수주금액은 약200억 엔
- 미쓰비시는 증기터빈과 발전기 제작, 마루베니는 터빈수송과 기재조달을 담당
- * 당진화력발전소 9호·10호기 설비로 최대 발전용량은 100만 킬로와트

□ 일본 관련 보고서 리뷰

韓經·요미우리 공동으로 한일 기업인 200명 설문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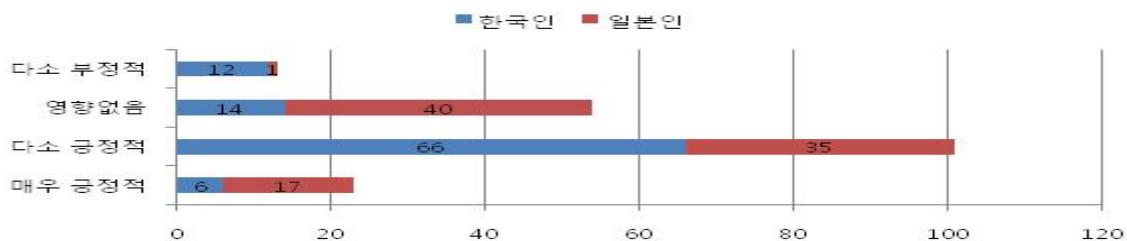
2010.8.4

- 한국경제신문과 요미우리신문이 공동 실시한 ‘한일 기업인 200명 설문조사’에서 두 나라의 발전을 위해 ‘더욱 긴밀한 경제협력이 필요하다’고 응답
 - * 한일FTA 체결이 ‘필요하다’고 응답한 기업은 한국기업이 47%, 일본기업이 61%로 조사
- 한국은 시장개방으로 일본의 부품소재나 제조장치 등의 수입이 늘어나는 것을 우려한 반면, 한국 대기업은 FTA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음
- 한일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것
 - 한국기업인: 한일FTA(47%), 무역투자확대(33%), 문화·예술교류(18%)
 - 일본기업인: 한일FTA(61%), 무역투자확대(22%), 문화·예술교류(7%)



○ 한일FTA가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

- 한국기업인: 매우 긍정적(6%), 긍정적(66%), 영향 없음(14%), 부정적(12%)
- 일본기업인: 매우 긍정적(17%), 긍정적(35%), 영향 없음(40%), 부정적(1%)



○ 한일경제교류 확대 전망

- 한국기업인: 확대될 것(93%),
- 일본기업인: 확대될 것(87%)

*한일경제 교류가 축소될 것으로 대답한 사람은 한명도 없었음

【금주의 일본 주요 보고서】

「다가오는 재정파탄 카운트다운」 미즈호종합연구소, 8월3일

*출처: <http://www.mizuho-ri.co.jp/research/economics/pdf/research/r100801.pdf>

「에너지전환과 재생에너지보급을 위한 과제」 노무라종합연구소, 8월3일

*출처: <http://www.nri.co.jp/opinion/chitekishisan/2010/pdf/cs20100603.pdf>

「변화하는 아시아신흥국의 대도시」 일본종합연구소, 8월4일

*출처: <http://www.jri.co.jp/MediaLibrary/file/report/rim/pdf/5100.pdf>

「EV·PHV 타운 베스트 프랙티스」 경산성, 8월4일

*출처: <http://www.meti.go.jp/committee/summary/0004487/bestpractice1st006.pdf>

「아시아 인프라 수요 획득 효과」 제일생명경제연구소, 8월5일

*출처: http://group.dai-ichi-life.co.jp/dlri/rashinban/pdf/et10_120.pdf

「기업경영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」 경제동우회, 8월5일

*출처: <http://www.doyukai.or.jp/policyproposals/articles/2010/pdf/100804a.pdf>

「중소기업의 해외 판매 개척과 마케팅 실태」 日공고종합연구소, 8월6일

*출처: http://www.jfc.go.jp/common/pdf/soukenrepo_10_01.pdf

【금주의 일정】

일 자	주 요 일 정
8월 2일(월)	○ 6월 매월 근로통계조사(후생노동성)
8월 3일(화)	○ 7월 Monetary base발표(일본은행) ○ 온실효과가스 배출량산정 기준에 관한 연구회 실시(경산성)
8월 4일(수)	○ 한·일(호쿠리쿠)경제교류회의 개최 (도야마현) ○ 산업구조심의회 제4회 경제협력위원회 개최(경산성)
8월 5일(목)	○ 7월 자동차별 판매대수 발표(자판연) ○ 산업구조심의회 인프라시스템수출부회 개최(경산성) * 무토 마사토시 신임 주한 일본대사 부임
8월 6일(금)	○ 6월 경기동행지수 발표(내각부)

*7일(토): APEC 성장전략 하이레벨 회의(오이타현, 8일까지)